배우 오만석, 신하균, 박희순(왼쪽부터)

“올레~” 제주도로 떠난 유쾌한 세남자

영화 ‘올레’ 신하균·오만석·박희순 “쉼표 같은 영화” … 내달 25일 개봉

올해 여름 성수기 대작 열풍 속에서 작지만 유쾌한 영화 한 편이 도전장을 내민다.

한때는 잘 나갔던, 그러나 지금은 팍팍한 현실에 맞부딪히고만 세 남자의 제주도 여행기를 그린 영화 ‘올레’다.

26일 서울 강남구 CGV압구정에서 열린 ‘올레’ 제작보고회에서 주연배우 신하균, 박희순, 오만석은 작품에 대해 ‘쉼표 같은 영화’ 혹은 ‘힐링이 되는 영화’라고 입을 모았다.

희망퇴직 권고를 받은 대기업 과장 ‘중필’역을 맡은 신하균은 “대학 시절의 아련한 추억과 새로움에 대한 설렘이 공존하는 영화이자 친구와 함께 보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영화”라고 ‘올레’를 소개했다.

영화는 ‘중필’과 13년째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수탁’(박희순), 마지막 방송을 앞둔 아나운서 ‘은동’(오만석)이 대학 선배 부친의 부고 소식을 듣고 제주도에 모이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뤘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난 이들은 제주도에서 낭만을 만끽하고자 하지만, 마치 이들이 마주했던 현실처럼 모든 계획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올레’는 채두병 감독의 데뷔작이자 채 감독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했다.

채 감독은 “서른아홉살 때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겪은 이야기와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했다”며 “현실이 반영된 에피소드라 관객들에게도 친숙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균과 오만석은 1974년생으로 마흔두살, 박희순은 1970년생으로 마흔여섯살이다.

비슷한 나잇대의 배우들이 뭉치다 보니 현장 분위기는 마치 실제 친구들이 모인 듯 매우 끈끈했다.

오만석은 “촬영이 끝나면 숙소 1층 식당에 모여서 막걸리를 마셨다”며 “일과를 끝내고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던 모습이 지금도 자꾸 떠오른다”고 말했다.

박희순 역시 “촬영 당시를 돌이켜보면 막걸리가 가장 떠오른다”고 웃으며 “보통 촬영에 들어가면 몸매 관리도 해야 하고 얼굴이 부을까도 걱정돼 술을 자제하는 데 역할이 역할이니만큼 이번에는 마음껏 마셨다”고 털어놓았다.

40대 친구들의 우정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채 감독은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힘들게 사는 것 같더라”며 “그래도 막힌 길은 없다, 길은 항상 뚫려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하균은 “영화 제목이 제주도 올레길이란 의미도 있지만 감탄사로서 ‘힘내’, ‘잘한다’라는 뜻도 있다”며 “일상에 지친 사람이 영화를 통해 잠시 휴식을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만석은 “최근 자극적인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다양한 영화의 발전을 위해 ‘올레’처럼 쉼표 같은 영화도 많이 사랑해달라”고 부탁했다.

영화는 8월 25일 개봉한다. 15세 이상 관람가.

/연합뉴스

‘빅뱅’ 탑, 10월 홍콩서 자선경매

미술작품 큐레이터로 나서
경매전문 ‘소더비’와 협업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29·사진)이 세계적인 경매 전문기업 소더비와 손잡고 자선 경매를 개최한다.

25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탑은 10월 3일 홍콩에서 소더비와 함께 ‘#TTTOP’란 제목으로 직접 큐레이팅한 미술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선 경매를 진행한다.

‘#TTTOP’는 탑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서 따왔으며, 젊은 컬렉터인 아시아 유명인이 큐레이터로 나서 소더비와 합작 프로젝트를 여는 건 처음이라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다.

평소 다양한 예술 작품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탑은 소더비와 지난 1년간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여느 미술 경매처럼 아트 컬렉터가 소장해온 작품을 내놓고 파는 상업 경매가 아니라 기부 형식의 프로젝트”라며 “소더비 또한 경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고 탑도 개런티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매 수익금 일부는 ‘더 아시안 컬처럴 카운슬’(The Asian Cultural Council)을 통해 재능이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하는 아시아 젊은 예술가들에게 쓰일 예정이다. 이 재단은 아시아와 미국에서 재능있는 신인 아티스트들의 문화 교류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연합뉴스

포크 가수 채은옥 내달 컴백

데뷔 40주년 싱글 발표

1970년대 여성 포크 가수 채은옥 〈사진〉 이 데뷔 40주년 기념 디지털 싱글로 컴백한다.

소속사 ㈜아트인터내셔널은 채은옥이 8월 5일 싱글 ‘고마워요’와 ‘입술’을 음원사이트에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고마워요’는 살아오며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고백송으로 채은옥 자신을 아는 모든 이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한다.

소속사 관계자는 “채은옥 씨가 1976년 ‘빗물’로 데뷔해 그 시절 함께 울고 웃던 사람들의 절절한 정을 되새기고 잘 대해주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회한을 담은 노래”라고 소개했다.

채은옥은 1970년대 허스키한 음색으로 사랑받았으며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지 못했다.

최근 아트인터내셔널과 계약을 맺은 그는 본격적으로 방송과 공연 활동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PD의 자연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정전63주년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45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재)	00 신입 리얼 도전기 루키(재)	00 창사 55주년 특별기획 〈옥중화〉(재)	00 닥터 365 05 위대한 유산 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12	00 KBS 뉴스 12	00 KBS 특별기획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W〉(재)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 55 테마스페셜
1	00 여름특선 행복한 지도 30 여름특선 영상앨범 산		30 2016 지구촌 어린이 돕기 희망 더하기 〈가나 편〉	55 TV 블로그 꼼지락
2	0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다시보는 대한민국 올림픽명승부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드림주니어 스페셜	00 열린 TV 시청자세상
3	15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리우, 우리 별을 꿈꾸다〉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5 튼튼생활체조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55 모두모두 쇼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고롤라즈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필 통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꼼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가족〉	3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리우, 우리 별을 꿈꾸다〉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9	55 신입 리얼 도전기 루키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시사토론’10’ 55 숨터	00 KBS 특별기획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00 수목미니시리즈 〈W〉	00 드라마 스페셜 〈원티드〉
11	00 KBS 뉴스라인 40 정전 63주년 특집다큐 〈다시 코리아로, 그들의 마지막 귀환〉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보컬 전쟁 신의 목소리
12	30 동행	1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리우, 우리 별을 꿈꾸다〉(재) 35 세상의 모든 다큐	35 MBC 뉴스 24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자카르타 음식탐험〉
06:10 세계의 눈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7:30 주사위 요정 큐비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1~3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출동! 슈퍼윙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대학 꼭 가야할까 ? 〉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아욱 된장국과 감자 베이컨 볶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초대석
13:40 사이틴3 왔다 사춘기
13:50 이얍 스페이스 정글
14:00 책과 팡
14:30 미앤마이로봇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꼬마철학자 휴고
15:35 호기심나라 오키도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6:00 출동! 슈퍼윙스(재)
16:30 방귀대장 뿡뿡이(재)
16:45 딩동댕 유치원 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래)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0:40 다큐 오늘 〈히말라야 꿀 사냥꾼, 빠랑게〉
20:50 세계테마기행 〈세이셸군도 대탐험 3부 - 환상의 섬을 찾아서, 라디그〉
21:30 한국기행 〈기운찬 로드 3부 - 여름 알차게 영글었네〉
21:50 EBS 다큐 프라임 〈넘버스 3부 자유의 수, 엑스〉
22:45 극한직업 〈무쇠 주방 기구 제작〉
23:35 장수의 비밀 〈레디액션! 우리동네 영화감독〉
24:05 지식채널 e
24:10 EBS 초대석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7일(음 6월 24일 庚戌)

子 **48년생** 상당한 수익이 주어지면서 풍요로움을 더 할 것이니라. **60년생** 시기의 선택을 잘 해야만 형국을 유지한다. **72년생** 기본 질서와 체계에 순응함이 유익하다. **84년생**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1, 85

丑 **49년생** 존부가 아니라 강도의 문제이니라. **61년생**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입장에 놓여 있다. **73년생** 편견을 버리고 다중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만하다. **85년생**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흔들림 없는 줏대를 가져라. 행운의 숫자 : 54, 22

寅 **50년생** 기다리던 소식 대신 더 중차대한 위치에 이른다. **62년생**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대단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74년생** 맹점을 놓치지 않아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86년생** 무난하리라. 행운의 숫자 : 15, 26

卯 **51년생** 적극적으로 행해야 성과가 클 것이다. **63년생** 서로 간의 처지가 뒤바뀔 수도 있으니 처세를 잘해야겠다. **75년생** 가만히 살펴보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87년생** 초기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겠다. 행운의 숫자 : 06, 29

辰 **40년생** 판이해질 수도 있다. **52년생** 만류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다. **64년생** 목적에 부합한다면 문제시할 필요 없다. **76년생** 부주의한다면 큰 일 날수도 있을 것이다. **88년생**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13, 45

巳 **41년생** 이르는 곳마다 상서로움이 있다. **53년생** 사리에 밝은 사람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65년생** 모순 구조의 핵심을 발견하게 되리라. **77년생** 막연히 추측하면 곤란하다. **89년생** 형세가 바뀌면서 무의미해진다. 행운의 숫자 : 37, 75

午 **42년생** 숨은 재주로 인한 이익이 따르리라. **54년생** 성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66년생** 한 번에 한정된 것이니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 **78년생** 쉽게 잃어버릴 수 있으니 철저한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2, 41

未 **43년생** 고민하지 말고 처음에 마음이 가는 곳으로 임하면 만사가 해결된다. **55년생** 답답하겠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상책이다. **67년생** 현혹되지 않도록 평정심을 유지하라. **79년생** 끈질기게 밀어붙인다면 성취하리라. 행운의 숫자 : 34, 07

申 **44년생** 변통할 여지가 없이 외곬에 놓여 있다. **56년생** 한 치의 오차도 용납될 수 없는 위상이니라. **68년생** 세 치의 혀를 잘못 사용한다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봉욕을 당하게 된다. **80년생** 만족도 보다 가능성에 주목하자. 행운의 숫자 : 99, 44

酉 **45년생** 번복될 수도 있는 구도여서 실망하기에 충분한 마당이다. **57년생**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다 알고 있느니라. **69년생** 여태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이로움이 있도다. **81년생** 다양하게 접해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9, 84

戌 **46년생** 방심한다면 급경사의 내리막길로 치닫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58년생** 중간 점검은 추진력에 일조한다. **70년생** 만사를 제쳐 두고 도와줘야 할 일이 생긴다. **82년생** 손실이 발생할 수다. 행운의 숫자 : 51, 64

亥 **47년생** 전환하기에는 너무 늦은 길목에 이르렀다. **59년생**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 **71년생** 동반자의 도움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83년생** 진행 방향은 다르지만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행운의 숫자 : 86, 4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